

동부교육청, 학교폭력 전담기구 연수

학폭 처리 과정에서 학교·교육청 역할 논의 초·중·고·특수학교 생활부장 대상 진행

동부교육청이 최근 2차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생활부장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급별 소규모 단위로 실시된 이번 연수는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생 생활교육 실시 ▲위기학생 신속 대응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정착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 연수 요구가 있었고 사전 설문 조사에서 74%의 교사가 집합 연수를 희망하는 등 교사들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또 학교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

특히 동부교육청은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 명확히 알려줬고, 학교 지원 방안으로 위기학생 신속 지원을 위한 동부 부르미 운영, 간편해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신청 방법 등도 안내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학교 밖 다중이용시설 자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19 불안감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안내, 온라인 개학에 따른 학생 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방안에 대한 연수도 진행됐다.

동부교육청은 광주북부경찰서에서 개발·보급한 ▲사랑스러운



나, 사랑스러운 친구들(초등학교 저학년용) ▲좌충우돌 학교폭력 탈출기(초등학교 고학년용) ▲친구야! 너는 아니?(중고등학생용)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 동영상 학생들에게 안내했다.

연수에 참여한 한 교사는 “처음 학교폭력 업무를 맡아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과 온라인 개학에

맞춰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영상 콘텐츠를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었다”며 “교사들의 질문과 교육청 담당자의 답변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사안 처리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동료 교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생활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연수였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광주시교육청,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광주시교육청이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 확대에 맞춰 민주시민교육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나눔터’를 운영한다.

지난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단위학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민주시민교육, 역사·계기교육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인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나눔터’를 구축·운영키로 했다.

민주인권교육센터, 교권보호지원센터, 생활교육자료실 등 기존 교육청 관련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나눔터’는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화면으로 구성됐다.

시교육청은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나눔터’에 원격수업 활용에 용이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시로 탑재할 예정이다. 또 민주

시민교육 관련 교원연구회와 연계해 교육영역별 지원단을 구성해 신규 자료 개발, 수업 아이디어 및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지원체계 운영도 병행하게 된다.

현재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나눔터’는 18세 유권자 선거교실, 세월호 참사 추모관, 4·19 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주요 계기교육 및 인권교육, 생활교육, 민주시민 교과서e-book, 독도교육 등 영역별 민주시민교육 관련 자료실이 통합·연계돼 있다.

장휘국 교육감은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의 저력인 시민의 힘을 길러내는 민주시민교육이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나눔터가 현장 교육 나눔터에 원격수업 활용에 용이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시로 탑재할 예정이다. 또 민주

시민교육 관련 교원연구회와 연계해 교육영역별 지원단을 구성해 신규 자료 개발, 수업 아이디어 및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지원체계 운영도 병행하게 된다.

광주송정도서관, 임시 휴관 속 독서 활동 지원 방안 마련

광주송정도서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관 중에도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의 독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광주송정도서관에 따르면 ▲주간예약대출 ▲전자책 ▲오디오북 ▲희망도서 ▲책바다 ▲책나래 ▲24시간 도서 무인 반납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과 간접적인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주간예약대출’은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도서를 신청한 후 다음날 도서관 안내실에서 예약 도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고 지난 23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용자는 1인 5권까지 신청 가능하고 도서 반납 기한은 3주로 늘렸다. 도서 반납은 24시간 운영되는 자동 도서 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개학과 함께 전자책 수요 증가에 대비해 비대면 정회원

인증 서비스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1일부터 이용자는 도서관에 직접적인 방문 없이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전화로 정회원 등록 요청을 하면 전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광주송정도서관은 독서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오디오북을 다운로드 받으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31일부터 모

바일 기기에 오디오북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키오스크’ 장비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하고 있다.

또 광주송정도서관은 임시 휴관과 관계없이 운영하는 서비스도 있다. ‘희망도서’는 도서관 미보유 도서를 이용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도서를 구입해 대출해 주는 서비스이다. ‘책바다’는 다른 공공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허성은 기자



서부교육청, 선동자연체험농장 운영

학생·학부모 대상

서부교육청이 선동자연체험농장을 지난 11일 개장했다.

지난 12일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학생·학부모가 농사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 속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동자연체험농장을 운영을 시작했다. 향후 농업기술센터 전문강사의 작물 재배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산구 선동에 위치한 유흥지를 선동자연체험농장(구 분량초 선동분교)으로 조성해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분양했고, 텃밭농사체

험 프로그램을 7년째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일부 구획을 비영리단체에 분양해 체계적인 농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이 단체는 청소년·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김장 나눔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텃밭을 분양받은 윤 모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연체험 활동을 함으로써 땅바람을 통한 삶의 지혜와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 신광중 재학생의 할머니, 마스크 200장 기부



재학생의 할머니가 신광중학교에 마스크 200여 장을 기부해 눈길을 끈다.

신광중학교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학년별로 드라이브 스루와 도보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배부했다. 이 때 한 할머니가 중학생 손자와 함께 교과서를 받으러 학교에 왔다가 운동장 먼지 속에서 얇은 마스크를 쓰고 고생하는 선생님들을 보고 마음이 안쓰러워 다음 날 학교를 다시 찾아와 200여 장의 마스크를 기부했다.

신광중학교 한 교직원원은 “이름을 밝히는 것조차 꺼린 할머니의

소중한 마음을 잘 받아 학교가 등교 개학을 하게 되면 마스크가 없는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먼저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희 진로 교사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록 온라인으로 개학을 시작했지만 학생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광주송정도서관, 독서 활동 지원 방안 마련

광주송정도서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임시 휴관 중에도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의 독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광주송정도서관은 ▲주간예약대출 ▲전자책 ▲오디오북 ▲희망도서 ▲책바다 ▲책나래 ▲24시간 도서 무인 반납 등의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과 간접적인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